# 무주당 현기 대선사, 적멸의 세계로 떠나다

**3월 24일, 영결식 후 통도사 다비**
**'지리산 은둔 수행자'로 불자 귀감**
**입적시 '좌탈입망' 생사 경계 초월**
**마지막 모습 무언의 설법으로 남아**
**3월 26일 초재 시작 5월 7일 막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결식 후 현기 대선사의 법구는 통도사로 이운돼 송수정 앞에서 노재를 봉행한 뒤, 연화대로 옮겨 다비를 진행했다. 사진은 통도사에서 진행된 노재와 다비.

**마음 달이**
**야반 삼경에**
**무주고원에 떠오르고**
**달빛은 철문을 두드릴 때**
**동산을 머리에 이고**
**물 위로 지나간다.**

간화선의 법등(法燈)을 밝혀온 무주(無住)당 현기(玄機) 대선사가 마지막 임종게를 남기고 적멸의 세계로 떠났다. 현기 대선사는 마지막 임종까지 좌탈입망으로 생사의 경계를 초월하며 생을 마감했다. 스님의 열반은 평생을 바쳐 이룬 수행의 완성으로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무언의 설법으로 남았다.

전국선원수좌회는 3월 24일 선산 죽림사에서 영결식을 봉행하고 마지막 임종을 배웅했다. 영결식 후 스님의 법구는 통도사로 이운돼 송수정 앞에서 노재를 봉행한 뒤, 연화대로 옮겨 다비를 진행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추모사에서 "무주당 현기 대선사님 다비식을 통도사 총림 연화대에서 봉행하게 된 것은 통도사 대중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큰스님께서는 평생을 참선 정진에 바치셨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사의 법맥을 굳건히 이어오셨다. 큰스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풍(禪風)을 드날리고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의정 스님은 "현기 스님은 수행자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존재였다. 평생 동안 선방에서 정진하며 수행의 길을 걸으셨고, 상무주암에서 40년간 두문불출하며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하셨다. 스님의 존재는 모든 납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 있다"며 "스님의 일상에서 보여주신 언행은 항상 후학들에게 커다란 가르침이 되었고, 그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추도사를 전했다.

법상좌 원구 스님은 "오늘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통도사 주지 스님과 대중 스님이 베풀어 주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저희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수행자로서 더욱 정진하며 그 뜻을 잊지 않고 수행정진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지리산의 은둔 수행자' 현기 대선사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세납 85세, 법납 64세로 입적했다.

무주당 현기 대선사는 1940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나, 1961년 10월 부산 묘관음사에서 당대의 선지식이자 성철 스님의 도반인 향곡(香谷) 스님을 은사로 불문에 들었다. 1965년 1월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하고, 평생 선 수행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1962년 묘관음사에서 수선 안거를 시작한 이후, 현기 대선사는 전국 제방 선원에서 60안거를 엄정하게 성만했다. 이 기간 동안 대선사의 발걸음이 미치지 않은 선방이 없었으며, 깊고 고요한 수행의 흔적은 늘 법계의 귀감이 됐다.

무주당 현기 대선사의 49재는 3월 26일 초재를 시작으로 5월 7일 막재이다. 초재와 막재는 모두 대구 무광산사에서 열리며, 각 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다. 2재는 대구 무광산사, 3재는 봉화 축서사, 4재는 양평 상원사, 5재는 충주 석종사, 6재는 다시 대구 무광산사에서 봉행 될 예정이다. 053-477-0108

# 화엄승가회 2대 회장에 대각 스님 취임

**3월 21일, 창립 10주년 맞아**
**"모범 승가단체 되도록 최선"**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승가모임 화엄승가회(회장 대각 스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3월 21일 롯데갤러리움 웨딩홀에서 기념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화엄승가회 2대 회장으로 옥천암 주지 대각 스님이 취임했으며, 10년간 화엄승가회를 이끈 전임 회장 자인 스님에게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와 선물이 전달됐다.

취임사에서 신임회장 대각 스님은 "자인 큰스님께서 10년 전 부산불교 발전이라는 큰 뜻을 내시어 창립한 화엄승가회가 그간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봉사하는 승가단체로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화엄승가회의 정체성과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새겨 발전하고 모범적인 승가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임사에서 자인 스님은 "화엄승가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 떠오른다"며 "지난 10년간 함께 정진해 준 회원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제 새로운 회장단이 더욱 발전적인 승가회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생명나눔 부산·우리들병원 업무협약

**치료비 지원 환우 추천 등 협력**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와 부산우리들병원이 3월 25일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사진〉 협약식에는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성문 스님(사상구 선광사 주지), 이승표 부본부장(주식회사 매직골드 대표), 조세민 부산우리들병원 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치료비 지원 환우 추천 및 선정 △병원 내 캠페인 및 행사장소 제공 △각종 행사 시 상호협조 △부산본부 임직원 및 회원 대상 병원비 할인 등에 협력한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매월 2명의 환우에게 치료비(최소 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들병원에서 추천하는 환우를 적극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홍법사, 미 해병군수단 장병 불교문화 체험 진행

**3월 25~26일, 40여 장병 방문**
**싱잉볼 명상 · 발우공양 등 경험**


홍법사를 찾은 40여 명의 장병은 참선하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미 해병군수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국 불교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에서 훈련 중인 장병들을 위해 마련된 일정으로, 이들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암, 홍법사를 차례로 방문해 한국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심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힘을 통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며 "물리적 평화와 정신적 평화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세계평화가 찾아온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마음의 평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법사를 찾은 40여 명의 장병은 참선하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차 체험을 통해 차 문화에 담긴 수행 정신을 경험했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싱잉볼 명상과 천연염색 체험이 이어졌다. 또 발우공양을 하면서 한국불교의 식사 예절과 절제 문화를 배우고, 제기차기와 투호던지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일정을 마친 장병들은 주지 심산 스님에게 해병대 기념 동전을 선물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장병은 "소음과 혼돈으로 정의되는 세상에서 군인인 우리는 종종 자기 치유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 오늘의 경험은 평화로웠고, 해병대원들의 내면에 고요함을 제공했다"며 "이번 체험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뿌리와 불교 수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해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법사는 3년 전부터 미 해군 레이건호, 칼빈슨 항공모함 장병 등 미 해군 장병들에게 한국불교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해병대 장병들이 홍법사를 찾아 한국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불교문화 전파와 교류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부산불교문인협회, 삼사순례 문학기행

**3월 22일, 양산 및 울주 일원**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차정연)는 3월 22일 양산과 울주 일대에서 삼사순례를 겸한 문학기행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문학과 수행, 사찰문화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양산 통도사, 천성산 미타암, 울주 고경사를 순례하며 문학적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와 기도 시간을 통해 사색과 시상을 떠올렸다.

차정연 이사장은 "문학도이기 전에 진실된 불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